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기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민성동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2월 13일(금) 제 3267호

## 전한길 “1천억 모아 제2건국” 선 넘은 체제 부정 발언 논란

‘윤어게인’ 전한길, ‘尹 중심 제2건국’ 펀드 1000억 모금 발언 파문  
“행정부·사법부 없앤다” 영도 확장·국호 변경까지 과격 주장  
조갑제 “망상 수준… 극우 항상 이렇게 자폭한다” 강도 높게 비판

윤어게인 세력인 전한길씨가 “1천억을 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 2의 건국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어게인을 하고, ‘건국 펀드’를 준비 중”이라며 “단계 목표 모금액을 100억원이고, 이후 500억원, 1천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인당 최소 천만원이상, 1억이상으로 시작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수처 없앨 거고, 경찰, 검찰 국정원안에 빨갱이가 절반이어서 없애겠다”며 “어떤 사람들을 내각 명단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오는 3~4월



전한길 씨

이민 (부정선거) 끝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4년 4월(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에 52명이 가짜이다. 총선도 새로 실시해야 한다. 국회가 해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제2건국)중국 정권이 붕괴되면 동북삼성인 김립성, 흑룡강성,

랴오닝성까지 국토를 넓고, 몽골까지 합하여, 과거 발해의 그 영토까지 합해, 동아시아의 최 강국이 우리나라가 된다”며 “대한 민국의 나라이름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수 언론인인 조갑제 <조갑제 TV> 대표는 “윤석열 중심의 건국론, 행정 사법부 등 폐지, 고구려 땅 영토편입, 1000억 건국펀드 모집, ‘부정선거 밝혀져 이재명 정부 붕괴’ 예언 등”을 거론했다면서 “그가 한국사를 가르쳐서 다행이지 세계사를 가르치면 세계정복을 꿈꾸는 ‘망상 징기스칸’이 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국힘의원들, 극우파, 장동혁, 음모론자들, 일부 목사들이 전한길과 더 세계 한몸으로 묶고 있고 (이)씨는 새끼줄에 매달리는 이들이 만원”이라면서 “극우는 항상 이렇게 자폭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제107주년 3·1절 맞아 이석규 애국지사 위문

전북도는 12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장과 이강안 광북회 전북도지부장을 비롯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이석규(100세) 애국지사를 위문했다. <사진=전북자치도>

## 전북, BNY와 금융산업 협력 확대… 금융중심지 가속

금융위원회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이후 전략 연대 본격화  
전주사무소 거점 디지털·AI 기반 자산관리 협력 추진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지니포럼 참여 등 지속 교류 확대

전북도는 12일 도청에서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한국대표와 만나 금융산업 발전 방안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했으며, BNY 측에서는 전인 박현주 대표와 신임 서봉균 대표, 장철복 전주사무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대표 이·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신청한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약 50조 달러 규모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며 글로벌 수탁·자산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BNY와의 협력 강화는 금융특화도시 조성에 결정적인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NY는 2019년 전주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전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계열사인 투자자문인 추가로 사무소를 열었으며 전북 국제금융컨퍼런스와 지니포럼 연계 행사에도 참여해 왔다.

같은 해 제4회 지니포럼에서는 로빈슨 회장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지니어워즈를 수상한데 이어 삼금 1만 달러 전액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며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다.

또 지난해 4월에는 BNY 아시아태

평양 고위급 임원과 면담을 갖고 금융산업 발전과 네트워크 확장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신임 서봉균 대표는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과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앞으로 전주사무소를 거점 삼아 디지털·AI 기반 금융 협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며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BNY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전북이 국제적 위상을 갖춘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道, 3·1절 맞아 ‘100세 독립운동가’ 이석규 응 위문

호남권 유일 생존 애국지사…1943년 광주사범학교 독서회 항일활동  
전북도, 전주보훈요양원 찾아 격려금·위문품 전달  
독립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월 100만원 등 예우 지속 확대

전북도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12일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석규(100세) 애국지사를 찾아 위문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위문에는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장과 이강안 광북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장이 함께했으며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숭고한 뜻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석규 애국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당시 학우들과 독서회를 조직해 독립선언문을 필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2010년 3월 1일 대통령표창을 서훈받았다.

현재 국내 생존 애국지사는 총 4명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제주에 각 1명씩 생존해 있으며 이석규 애국지사는 호남

권에서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다.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장은 이에 대해 “이석규 애국지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토대가 되었다”며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생존 애국지사에게 매월 100만 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3·1절과 광복절 계기 격려금, 생신축하금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타임스 광고문의



광고문의 : 063-282-9601

E-Mail: jbn8800@daum.net

### 전북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 전북, 밀라노서 '올림픽 노하우 흡수' 전주 유치 속도

### IOC 고위직 옵저버 프로그램 참여 등선-미디어 등 현장 운영 사례 확인 이재용-반기문 만나 민관 공감 확대 K-컬처 연계 '문화 올림픽' 구체화

전북자치도는 5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주요 공식 일정에 참석하고 올림픽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차기 올림픽 유치에 관심 있는 국가 및 도시의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위직 옵저버 프로그램 공식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자치도 출장단은 올림픽 개최 도시의 준비 과정과 경기 운영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등 올림픽 유치와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축적했다.

김 지사는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다목적 실내경기장을 찾아 경기 운영 시스템과 시설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장 내부 구조와 관람객 이동 동선, 미디어 운영 공간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를 마무리하고 비용대비 편익(B/C)가 1.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국민 찬성률 82.7%, 전북도민 찬성률 87.6%로 높은 공감대도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림픽 유치 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기간 동안 국제스포츠 관계자들과의 교류도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 회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 국내 주요 인사들과 만나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밀라노 도심 곳곳에 조성된 올림픽 스폰서 존과 메가스토어 등 관련 시설을 둘러보며 주요 관광지와 올림픽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스폰서 홍보 공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해 대한민국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한 해외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직접 보고, 향후 K-컬처를 전주 문화올림픽과 연계·융합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5일부터 12일까지 김관영지사를 비롯한 출장단이 이탈리아를 방문해 밀라노 동계올림픽 주요 공식 일정에 참석하고 올림픽 현장을 참관했다. <사진=전북도>

이와 관련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밀라노를 중심으로 총 8개 도시에서 경기를 분산 개최하는 구조로, 개최 도시 간 이동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회다. 특히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 간 거리는 약 410km에 이른다.

이는 올림픽이 반드시 단일 도시 또는 근거리 집적 개최 방식만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시설 활용과 지역 특화 종목 배치, 교통·운영계획의 합리성이

확보되면, 광역 분산개최도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전주 하계올림픽 분산개최 전략 역시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권 및 인접 지역 간 이동거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 사례와 비교할 때 짧은 수준으로, 체계적인 수송계획과 선수·미디어 운영 전략을 병행할 경우 충분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 김정수 교수, 소리축제 신임 집행위원장 위촉

### 도립국악원 상임연출 역임 소리축제 등 현장 경험 풍부 축제 체계 재정비 나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철)는 최근 열린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총회에서 김정수 전주대 교수를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인선은 축제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고 예술 기획과 조직 운영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으로 이뤄졌다.

소리축제는 공연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대규모 문화행사 기획·운영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 축제 운영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김정수 교수를 적임자로 위촉했다.

김정수 신임 집행위원장은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 공연기획실장과 상임연출을 역임했으며, 소리축제 예술감독을 맡아 축제 기획과 제작 전반을 이끈 바 있다. 또 전주국제영화제 사무국장, 전주월드컵 문화행사집행위원회 기획연출팀장,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추진

위원회 총감독 등을 역임하며 대규모 문화행사 기획과 연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장정철 기자



김정수 집행위원장

학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우석대 연극영화과 겸임교수와 영국 SOAS 런던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전주대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리축제는 김정수 신임 집행위원장이 예술 현장과 학계, 지역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의 예술적 방향 설정과 운영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신임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는 우리 음악과 세계 음악이 만나 소통해 온 의미 있는 축제다"며 "그동안 축제가 축적해 온 성과를 존중하면서 예술적 깊이와 동시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리축제는 이번 집행위원장 선임에 계기로 예술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국내외 교류 확대와 안정적인 축제 운영 기반 구축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 장동혁, 靑 오찬 2시간 전 돌연 불참...여야 영수회동 무산

### 당내부 보이콧 요구 입장 급선회 최고위 "정치 이벤트용 만남" 비판 설 목전 '협치 상징 회담' 불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정경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이 하기로 했던 청와대 여야 영수 오찬 회동에 불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도 청와대 오찬 회담 참여 입장을 밝혔으나, 회동 2시간전에 회동 불참을 통보, 청와대 여야 영수회동이 무산되었다.



장동혁 대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대통령, 여당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오찬 참석 입장을 확신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친장동혁계 최고

위원들이 오찬 보이콧을 주장하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설을 앞두고 (정부여담이)갈등이 없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청와대가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한다"며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단식을 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하다가 민주당 내부 문제가 심해지니까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기 위해 야당 대표를 부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장 대표를 민주

당의 오점과 이 대통령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도 장 대표의 오찬 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린다"고 가세했다.

이에 장 대표 입장도 180도 달라졌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들께서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고위를 마치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 오찬 1시간 전에 불참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 설 성수식품 184건 검사...농산물 1건 부적합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4건 가운데 농산물 1건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조리식품 76건, 농산물 88건, 수산물 20건 등 총 184건이다.

주요 검사 품목은 떡·나물류 조리식

품과 부침가루·식용유 등 가공식품, 조식·명태 등 수산물, 사과·배 등 제수용품·선물용 농산물 전반이다. 벤조피렌, 총 아플라톡신, 잔류농약, 방사능 등 식품 유행병 기준·규격 항목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식품과 농수산물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농산물인 썩가지 1건에서 농약 성분인 오테토에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즉시 해당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도, '주거비 지원 3종 세트' 확대...청년·신혼·저소득층 숨통

### 보증금 무이자 융자 2천만원 지원 전세대출 이자 연 150만원 보전 올해 76억 투입 주거 안정 강화

전북도는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 '주거비 지원 3종 세트'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6년간 5,714가구

에 총 491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먼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사업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가능하며,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올해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19억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은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 대

전북도는 저소득층·신혼·청년 '주거비 지원 3종 세트'를 올해 확대한다. <사진=전북도>

상을 청년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18~39세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당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

택에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신혼부부·청년 500가구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 최대 3,0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보장 후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는 175가구를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사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올해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212가구에 3억 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992가구에 180억 원이 지원됐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전북에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주시 '시민 중심 미래 모빌리티' 혁신 가속도

## 12일 현대기아자동차 전북지역본부 간담회 개최 대중교통 대전환 대응 협력 강화

전주시가 시민 중심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시는 12일 전북도청 일원에서 현대 및 기아자동차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들과 대중교통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미래 모빌리티 혁신 및 안전한 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 전체 시내버스 약 46%를 수소버스로 운영하며 친환경 교통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시는 12일 현대 및 기아자동차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들과 대중교통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미래 모빌리티 혁신 및 안전한 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운데)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26년도 수소버스 63대와 전기버스

29대를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시는 덕진공원 1차 개발 완료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착공,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대규모 도시 공간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심 교통흐름 변화에 대비해 현대차의 친환경 버스 기술과 기아의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교통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기업 측과 폭넓게 논의했다. 전북현대모터스 주말 휴경기 당일 운영되는 '1994 특별노선'과 지역 주요 축제 등에 수소버스를 우선 배치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2026년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개시

## 소상공인·소기업 500억 금융지원 최대 1억원 3년간 3%이자 지원

전주시가 올해도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한 '2026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소비침체 장기화와 금융 환경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330억원)보다 170억

원 늘어난 500억원으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인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업체당 소상공인은 최대 700만원, 소기업은 1억원 이내(신용보증재단 기 보증금액 포함 소상공인 1억원, 소기업 1.5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 대출 금리 연 3%(시 2%, 도 1%)를 지원해 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리는

연 4.85%(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수준으로, 연 3%의 이자가 지원되면 고객 부담금리는 연 1.85% 이내 수준이다. 올해 사업에는 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을 비롯해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다수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오는 26일부터 방문 상담 가능하며,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 예약이 필수다. 예약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은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자 및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완산구일 경우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덕진구일 경우에는 덕진지점을 각각 방문하면 된다. 상담 및 서류제출을 완료한 이후에는 보증 심사를 거쳐 사업체당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기상지청 설 연휴 전북 날씨 전망

전북 대체로 구름 많음  
전주시기상지청 신년성 지청장은 설 연휴 기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북도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연휴 기간 전북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신 지청장은 귀성길 전후 전북 전 지역 짙은 안개 예상으로 도로에 살얼음이 생겨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서해상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도서 지역 여객선 운항 여부 확인을 강조했다. 이번 설 연휴 초반 2월 14일과 15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가, 연휴 후반 2월 16일부터 17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평년 수준 기온 분포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휴 날씨를 덧붙였다. 전주시기상지청은 기업계 이동 속도와 강도에 따라 감수 시점과 지역이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귀성·귀경길 이동 전 최신 기상정보 확인을 중시했다. 연휴 초반 해상 상태는 양호하겠

지만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서해상 중심으로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설 연휴 기간 전 해상에서 1.0~2.0m 물결 예상,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서해상에 물결이 1.5~3.5m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14일~15일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 짙게 끼는 곳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바다 안개와 높은 물결로 인해 해상 교통 및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 여객 운항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전주시기상지청은 설 연휴 국민의 안전한 이동과 생활 편의를 위해 2월 13일부터 육상,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다양한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http://www.weath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기상지청 신년성 청장은 "연휴 초반 짙은 안개와 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날씨 정보는 2월 13일부터 제공되는 "설 연휴 기상정보"(<https://www.weather.go.kr/w/special/newyear/index.do>)를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우수도시' 선정

## 전통과 첨단기술 융합 성과 인정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전통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잘 수행한 우수도시로 인정 받았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4차 법정 문화도시(17곳)와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 등 국내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대한민국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해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를 만들고, 도시 브랜드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전국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성과평가에서 각 문화도시별 정책 추진 성과와 실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원년인 지난해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 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해 독보적인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실험형 콘텐츠를 육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표적인 실험형 콘텐츠인 △기록유산을 AI와 로봇 기술로 재해석한 '기억의 빛' △관객의 소망을 빛의 군집으로 구현한 '소원등' △감정에 반응하는 국악기 '소리화답' 등은 단순 기술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구현했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또 시는 'AI 국악 크로스오버' 공모전을 통해 국악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융합하는 등 국악의 대중적 접근성을 확대하고 문화도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도 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창작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 '미래문화콘텐츠 아카데미'와 '만사 OK 프로그램'의 경우 96.6%라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미래문화축제 '팔복은 '팔복팔경'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는 이번 우수도시 선정과 지난해 추진한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미래문화 콘텐츠를 고도화해 전주를 미래문화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병원 설 명절 대비 비상대책 '만전'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병원 주차장 무료 개방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북대병원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직 의사를 지정 운영하며 의료진 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중증외상 및 다발성 외상환자

에 대해 응급처치부터 수술, 입원까지 지체 없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24시간 1인 이상 상시 배치하고, 각 진료과 당직의사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에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을 찾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16일 23시부터 18일 오전 8시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 연휴 기간 중 환자 치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상주 보호자 1인을 제외한 병문안은 제한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동물원 설 연휴기간 정상 운영

##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15일부터 18일까지 주차장 무료 개방

전주시는 민족 대 명절 설 연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휴무 없이 전주동물원을 정상 운영한다. 동물원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다. 특히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노약자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와 유모차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련해 시는 설 연휴를 맞아 전주시민

과 함께 전주를 찾은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동물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동물원 내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동물사와 관람로를 정비하는 등 쾌적한 관람 환경을 준비한다. 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도 연휴 기간 휴장 없이 정상 운영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노후 석면판 지붕 철거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접수

전주시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함유한 석면판(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올해 총 4억31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석면판(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석면판(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석면판(슬레이트) 지붕철거 100개동, 지붕 개량 22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석면판(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 및 소유자로, 시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

다. 먼저 우선 지원가구에 석면판(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 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석면판(슬레이트) 면적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면적이 작은 순으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 새만금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행안부 주관, 전 분야 높은 평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60개), 공공기관(252개)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총 점 94.48점을 받아 49개 중앙행정기관 평균(89.48점)보다 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에서 '적합성', '처리 적정성', '처리기간 준수' 등 3개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아 공평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객관리 분야에서도 '고객수요 분석'과 '고객만족도'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국민 체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 정읍 가축시장·주변 축산 시설 방역상황 긴급 점검·요원 격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11일 순정축협(조합장 남상국)이 운영하는 정읍 가축시장 및 주변 축산 시설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방역요원을 격려했다.

김 본부장은 가축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전후 소독기간을 지정하고 범농협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축사주위 등 위험요소 중심으로 일제소독 지원을 실시했다.

전북농협은 설 명절 전후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하고 공동방제단 46개반, NH방역지원단 5개반, 전북 관내 농·축협 방역방제기 및 드론 등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구성해 소규모 농장 및 위험지역과 양돈·가금농장 인근·축사 주변 등 위험요소 중심으로 소독 등을 지원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AI가 전국 단위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방역에 있어 매우 중대한 시기"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범농협의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활용해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축질병 발생은 의심 주요 증상분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당국(1588-9060 /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0월부터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상황실'을 운영해 지자체·축협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및 긴급상황에 대처 하고 있으며 축협 공동방제단 46개반을 활용해 밀집사육지, 철새도래지, 전통 시장 등 취약지역의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농은 지난 11일 순정축협이 운영하는 정읍 가축시장 및 주변 축산 시설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방역요원을 격려했다.

또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대영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서는 축산관계비해 방역물품 비축기지 6개소에서 생석회, 소독약, 방역복을 긴급상황 및 조동 대응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축협은

## 국민연금 해외 첫 '오피스' 임대 100% 달성

준공 전 CIBC은행 등 주요 임차인 유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2016년 해외부동산 투자 역사상 처음으로 '오피스'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CIBC Square 오피스 2개 동'이 준공 4개월을 앞둔 현재 임대율 100%를 조기 달성했다.

국민연금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CIBC Square 오피스 2개 동에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투자를 시작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조5천억원, 면적은 86,255평이다.

국민연금 투자 개시 후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 2022년 말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국민연금은 우량 입지에 소재한 트로피 자산(Trophy asset)은 견조할 것이라는 분석 하에 사업 중단없이 진행된 결

과, 난이도가 높은 해외 오피스 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CIBC Square 오피스 2개 동 중 'Tower 1'의 경우 2021년 준공 후 리파이낸싱을 통해 투자원금 대부분을 기회수 완료했으며, 'Tower 2'의 경우는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 나, 준공 전 약 4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오피스 임대율 100%를 조기에 달성한 상태이다.

국민연금은 CIBC Square 오피스 개발사업 투자 이후 뉴욕 맨하탄 소재 One Vanderbilt, One Madison Avenue 등 해외 트로피 오피스 개발사업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2025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피스 개발사업인 마곡 원드로브를 순조롭게 준공시킴으로써 코어 투자 뿐 아니라 개발투자자의 우수 한 투자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중기청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동반 활성화 도모

##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은누리상품권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 소비 활성화 유도를 위해 '설 맞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5년 도내에 대폭 확충된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은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동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일 전북중기청 직원들이 모래

내골목형상점가와 전주모래내시장을 찾았다.

직원들은 상점가 곳곳을 돌며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2일 김제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유관기관 합동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 행사 외에도 전북지방환경청,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들은 각 기관별 자체 일정에 맞춰 도내 전통시장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전북중기청은 장보기를 통해 마련한 물품들을 김제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지역 사회와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김영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 소비 활성화 유도를 위해 '설 맞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제23기 정기총회'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지난해 경영 성과 보고와 함께 2026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 전주김제완주축협 제23기 정기총회 개최

당기순이익 24억4천만원 달성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제23기 정기총회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지난해 경영 성과 보고와 함께 2026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한해 동안의 경영 실적을 결산하고, 조합의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상

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감사)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 해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어려운 축산 환경 속에서도 당기순이익 24억4천만원 실현, 상호금융 총 1조3552억원 달성(예수금 7133억원 / 대출금 6419억원), 경제사업 5년 연속 2000억원 돌파 등의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정소민 기자

# 농진청, 밥에 넣어먹는 '보담'·'흑찬' 향산화 효과 ↑

## 10% 섞으면 효과 '쑥' 별도 손질 필요 없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팥콩 소비를 확대하고 용도 다양화를 위해 밥에 넣어 먹기 적합한 신품종 감정 팥콩 '보담'과 '흑찬'을 소개했다.

'보담'과 '흑찬'은 알이 작고 부드러운 혼반용 팥콩으로, 향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밥 지을 때 따로 손질하거나 삶지 않고 바로 섞어도 돼 편리하다.

'보담'(2024)은 검은색 속껍질(종피)을 가진 소립형 팥콩이다. 100알의 무게가 약 44g으로 작고 둥근 형태이며, 한 포기당 평균 75개 이상의 꼬투리가 달린다. 지역적응시험 결과 쓰러짐에 비교적 강하고 10아르(㉒)당 평균 수량은 302kg이다. 단, 알이 작아 일반 팥콩보다 수량이 다소 낮을 수 있어 초기 임도 확보와 적정 심는 간격 유지 등 생육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흑찬'(2019)은 짙은 보라색 속껍질을 가진 감정 팥콩이다. 직립형 품종(초형)이며, 가지 길이가 짧아 쓰러짐에 강하다. 100알 무게가 약 64g으로 밥에 넣기 알맞은 크기이다. 수확량은 10아르당 평균 450kg 이상이며 갈색무늬병·검은무늬병 등 낙엽병류에도 비교적 강해 농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으며 관리가 수월하다.

두 품종의 가장 큰 장점은 팥콩 속껍질에 함유된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다. '보담'은 속껍질 1그램(㉒)당 약 3.7mg, '흑찬'은 약 14mg 이상의 안토시아닌을 함유, 일반 팥콩보다 기능성이 우수하다.

또한, 단백질 27~30%, 지방 50% 이상을 함유해 에너지와 영양도 풍부하다.

연구 결과, '보담'이나 '흑찬'을 쌀의 10% 정도 혼합해 밥을 지으면 일반 쌀보다 항산화 기능이 2배 이상 높아지고,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무기질 함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팥콩 소비를 확대하고 용도 다양화를 위해 밥에 넣어 먹기 적합한 신품종 감정 팥콩 '보담'과 '흑찬'을 소개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1월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보담'과 '흑찬' 중 자 보급 신청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신품종의 빠른 보급과 재배 확대를 위해 팥콩 주산지를 중심

으로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가 신품종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 11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 위한 '온기배송 프로젝트, Heart Post' 봉사활동을 펼쳤다.

## 건협 전북지부-효자시니어클럽, 업무협약

연말까지 전자문진 도움 키오스크 수납 지원 등 서비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엄진영,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12일 전주효자시니어클럽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소속 시니어들은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내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자문진 도움, 키오스크 수납 지원, 검진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삼천신협 '전국 2군 대상' '전북 종합대상' 수상

종합경영평가서 성과 거둬

전주삼천신협(이사장 최태일)은 2025년 신협중앙회 조합 종합경영평가에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2군 대상과 전북신협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 삼천동 성당에서 개최된 전주삼천신협 제33차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전주삼천신협은 2019년 최태일 이사장 취임 이후 탁월한 재무적 성장과 성과를 이룩해왔다. 지난 6년간 총자산 1354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어 약

136% 성장했으며 연체율은 1.67%를 기록했다.

전주삼천신협은 지역사회발전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신협 어부바 원어민교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한집 프로젝트, 겨울철 난방용품 나눔활동인 △온세상 나눔캠페인 등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5년 12월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정소민 기자

## 전북지방우정청, 설 맞이 따뜻한 '한 끼' 온기배송

구분준 청장, 지역과 상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구분준)은 지난 11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 위한 '온기배송 프로젝트, Heart Post'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 취임한 제42대 구분준 청장이 강조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공 인프라로서 공적 역할 수행'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사회공헌활동이다.

행사는 전북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명절 기간 더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도내 위기 조손

가정 50가구를 위해 떡국, 사골곰탕, 만두 등으로 구성된 330만원 상당의 '명절 식품 키트'를 직접 포장하고 전달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번 식품 키트 지원에 이어, 다가오는 신학기에는 조손 가정 아동들을 위한 학용품 추가 지원하는 등 시기별 맞춤형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지방우정청은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사회공헌활동이다. 행사는 전북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명절 기간 더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도내 위기 조손

/김영태 기자

# 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본질적 교육활동 집중”

## 비대 조직 정상화 교육정책사업 정비 등 공약 세부 내용 발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가 5호 공약을 발표하며 1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공문서 총량제와 교육활동 소중 교육감책임제로 본질적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겠다” 5호 공약 세부 내용을 밝혔다. 유 대표는 실효성 있는 공문서 총량제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질적 교육활동에 집중하게끔 하겠다고 언급

하며 △조직 재구조화를 통한 비대 조직 정상화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관행적 사업 폐기 △비정상적 운영 각종 위원회 정리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마련 △학교업무지원센터 인력 보강 △교무업무지원교사 및 보직교사 증원 등의 병행을 설명했다. 공문서 총량제 감축율을 기관장 및 부서장 평가, 그리고 성과상여금과 연계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교권과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권을 되살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교육청, 2027학년도 대입 진학지도 연수

대학별·전형별 변화 지원 과분석 △2027학년도 대입 특징과 지원 전략 등으로 구성했다. 연수 강사에는 전북대입지원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조장익 교사가 △단위 학교 진학데이터 관리 △상담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안내한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및 대교협 상담교사단으로 활동 중인 박창욱 교사는 ‘고3 담임교사로서의 진학지도 로드맵’ 주제로 한 고3 학급 운영과 연계한 담임교사 역할과 대입전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을 위해 강의 영상을 유튜브 전북교육 대입정보 TV에 탑재해 보다 많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제4기 전북학생의회 워크숍 개최

## 전북학생의회 이해 등 실무형 프로그램 진행

전북도교육청 학생의회 예비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수련원에서 지난 3~5일과 10~12일 두 차례 ‘2026년 제4기 도지역 예비학생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제4기 전북학생의회의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무주, 장수, 부안 등 8개 지역학생의회 중심 협력교사와 업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

다. 워크숍은 ‘새로운 시작의 떨림이 전북 교육을 바꾸는 울림으로’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전북학생의회 이해 △인성 및 학생의회 소양 교육 △전북교육 현안 문제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 학생 중심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의원들은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각 분과위원회 채택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모의 정기회를 가졌다. 전북학생의회는 다음 달 입시회를 열어 제4기 학생의회를 이끌 의장을 선출



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군장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선정

## 외국인 인재 취업 경쟁력 ↑

군장대학교(총장 이진숙)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군장대학교가 그동안 쌓아온 산업체 연계 교육 역량과 글로벌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실무 중심 교육 강화로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군장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룬 교육과 산업 현장 실습을 연계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경

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제도는 대학에서의 전공 이론 교육과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훈련을 병행하는 교육 모델로, 학생들은 학습과 동시에 직무 역량을 쌓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 인재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인력 양성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장대학교는 그동안 산업체 연계 교육과 현장 중심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 운영기관 선정은 이러한 교육 역량과 국제화 교육 시스템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향후 대학은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



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진숙 총장은 “이번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선정은 군장대학교의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외국인 유학생들



## 전북원스포츠단 검도팀, 실업검도대회서 메달 획득

전북원스포츠단 검도팀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남원에서 펼쳐진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원스포츠단 검도팀이 2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단체전에 나선 검도팀은 인천광역시청을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수원특례시청에 1대2로 패해 3위를 기록했다. 또 개인전에 나선 이창훈은 예선과 32강, 16강, 8강을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준결승전에서 만난 구미시청 선수에게 1대2로 패해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검도팀 김형선 감독은 “부상선수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정신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선전할 수 있었다”며 “경기를 향상시켜 각종 전국대회 및 제 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입상 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설 연휴 화재 사고 예방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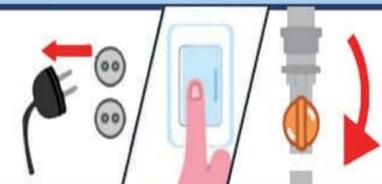
음식 조리 시 가연물 멀리 두기



기름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주방용 K급 소화기 사용



전원코드뽑기 / 전등소등 / 가스밸브확인



## “설 명절엔 익산으로” 전통과 체험이 만난다

익산시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해 전통과 현대, 자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우선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한라한옥체험단지에서는 오는 14~15일, 설 명절 문화프로그램 ‘설애(愛)함라’가 열린다.

한옥 공간을 배경으로 두바이 딸기모찌 만들기 체험과 포춘쿠키 나눔, 신년맞이 타로 체험이 진행된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에서는 17일 설 당일을 제외하고 13일부터 22일까지 ‘복작복작 기록마당’을 운영한다.

또한 백제왕궁박물관·마한박물관·고분전시관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연휴 내내 개관한다.

만경문화관에서 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오는 16일과 18일, 설 프로그램 ‘까지’까지 설날에는 뭐 하고 놀지’가 열려 전통놀이 체험과 함께 노리개·팽이·풍경 등 만들기 체험이 운영된다.

설 연휴의 마지막은 익산교도소세탁장에서 즐길 수 있다.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성당면 익산교도소세탁장에서는 ‘얼썩! 옛 놀이 한마당 IN 익산한교도소’가 열려 전통놀이 체험부스와 가족 팀 대항전, 추억의 먹거리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익산 전역에서 전통과 체험,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귀성객과 시민, 관광객 모두가 익산에서 머물며 추억을 쌓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2027학년도 대입 정책·고교학점제 입시설명회

군산시가 변화하는 대입 정책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21일 오후 2시 동아아트홀에서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신 입시 흐름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진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EBS 대표 입시 강사이자 현직 교사인 정제원 강사가 다년간의 학교 행사 경험과 입시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입 제도 전반의 이해 △고교학점제 실천 적용법 △성공적인 진로·진학 전략 포인트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참석자에게는 강의 외에도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 핵심 내용을 정리한 강의 자료집이 제공된다.

참석 대상은 군산시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200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공부의 명수’ 누리집(study.gunsan.go.kr)에서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설맞이 복지시설 경로당 등 1286개소 지원

정읍시가 설날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총 1억 17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명절 기간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살피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78개소와 경로당 726개소, 저소득층·한부모가족 482세대에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특히 이학수 시장은 지난 11일 ‘정읍시립 요양원’과 ‘정읍원광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가족을 대신해 입소자들을 돌보는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정상화 ‘총력’

##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의회 협조...공공성 강화 위한 전환점 마련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기 위해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시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로컬푸드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 의결을 위한 제276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정상화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 요청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해 적극 수탁자 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다. 앞서 시의회는 해당 직매장의 직영 운

영 예산을 삭감하고, 관리위탁 동의안도 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운영 주체를 지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양점은 오는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시는 조속한 의회 협조를 통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이 이용해 온 직매장의 기능을 신속히 회복할 방침이다. 의회와의 신뢰와 협치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운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운영 공백에 따른 출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대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우선 어양점 출하 농가의 물량을 다른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분산 출하할 수 있도록, 모현점과 지역 농협 직매장 12개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입점 절차 간소화, 진열 공간 확보, 출하 교육 협조 등도 병행 지원된다. 또한 설 명절 이후에는 출하 농가

전환 협의회를 개최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 매장 근무자에 대한 안내와 고용 조정, 운영 수익 정산 등 계약 종료에 따른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운영 중단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기 위해 방송,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출하 농업인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은 “시민과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

## 전국 최초 3월 이후 시행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이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 원을 납부할 경우, 공단에서 28만 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 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며, 군산시가 2만8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 8천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체감 혜택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사업(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퇴직연금으로,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



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 지원 ‘두 배’ ↑

## 연간 최대 1백만원 3월 3~31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에 나선다.

시는 관외 대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친화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정읍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규모의 현실화다. 시는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을 기존 학기당 25만원(연 50만원)에서 학기당 50만원(연 최대 100만원)으로 2배 증액했다.

신청 문턱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신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입생에 한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정읍시로 전입 신고를 마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전북과학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첨단과학 캠퍼스 등 관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

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tm9325@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4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기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주거비 지원 확대가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읍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의회, 설 명절 맞아 민생 속으로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전통시장 장보기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민생을 살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

원들은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맞이 제수용품과 농수산물들을 구매하며 지역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탤다.

같은날 김경진 의장, 강경숙 부의장은 기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등급) 소상공인이다.

군산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군산시가 10억, 시중은행(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10억을 출연했고 전북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

등급)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군산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1.7%의 자부담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5%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 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융자받으면 된다.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특례 보증과 다양한 경영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2027~202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52건...국비 확보 본격 돌입

정읍시가 지난 11일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202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소장 6명과 실·과·소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읍의 미래를 견인할 신규 사업 52건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청년플–군산대, 청년 취업 지원

진로·취업 역량 강화 MOU 체결

군산시 청년플(청년센터·창업센터)과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국립군산대학교 재학생·졸업생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지역 청년들이 군산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학생·졸업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취업 및 지역 연계 교육과정 공동 기획·운영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지원 △ 기업(산업)체 및 지역특화산업 체험 지원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정책·지원사업 연계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청년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비상 진료 대책 운영

익산시가 설 명절 응급환자와 시민들의 의료 편의를 위해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휴 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 지역 병·의원 280개소가 운영된다. 휴일지킴이 약국은 154개소가 문을 열어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한다.

원광대학교병원과 익산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원광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수사랑병원과 익산제일병원은 오후 10시까지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익산 시보건소는 오는 16~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과 진료를 운영해 의료 공백을 보완한다.

연휴 기간 못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익산시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익산 시보건소(063-859-48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공’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 부안군, RE100 산업용지 전환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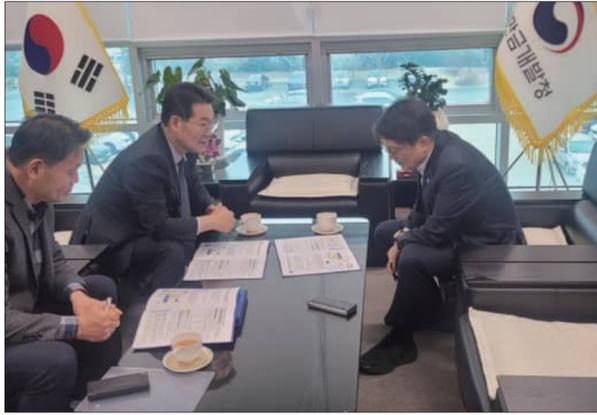
## 권익현 군수, 새만금 개발청 방문 "MP 재수립에 반드시 반영해야"

부안군은 지난 10일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부안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안군민 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된 군민의 뜻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1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의겸 청장을 면담하고 새만금 부안권역 RE100 산업용지 전환을 건의하며 오는 6월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시 반영을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10일 개최된 부안군민 총궐기대회는 작년 연말부터 새만금개발청 앞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으로 이어진 군민 행동이 하나로 결집된 결과"라며 "부안을 살리기 위한 군민의 절박한 의지가 분명히 표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최대 피해 지역인 부안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농생명용지 7공구를 포함한 부안권역의 산업용지 전환



부안군은 지난 10일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부안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안군민 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된 군민의 뜻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 새만금 내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장은 "부안군민 총궐기대회를 방송을 통해 확인했다"며 "군민의 간절함과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조한 '선택과 집중'과 '현실적 여건 고려' 방향에 따라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에 대해 검토 중이며 군의 의견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새만금 부안권역 RE100 산업용지 전환이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 공덕면 송산교차로 진출입연결로 설치

### 마현마을 방면 연결로 개설

김제시는 국토교통부의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3~27)"에 선정된 공덕면 송산교차로 진출입연결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도의 취차로 통과, 노폭협소, 급커브 등을 조사·분석해 국비를 투입함으로써 단기간에 국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국도의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을 위해 국도 구간의 사업이 필요한 구간들을 발굴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 및 협의해 선정됐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돼 착공

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1억원을 투입해 송산교차로의 지평선산업단지에서 마현마을 방면 진출입연결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결로가 없어 많은 차량들이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해당 사업을 통해 우회거리 단축을 통해 도로 이용자 및 주민들의 이동성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송산교차로 연결로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권 향상을 도모하고 안민지도(安民之道)의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1기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2026년을 맞아 영·유아의 책과 첫 만남을 돕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1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1기는 전문 강사와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병행하며 집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율동, 오감놀이, 책놀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4회차 마지막 시간에는 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뛰어 노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총 4회로 진행되며 장소는 시립도서관 3층 채움터 1강의실이다.

참여 대상은 13개월부터 26개월 영·유아와 보호자 총 10가족으로,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책으로 소통하며 즐거운 독서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보건소, 결핵 조기 발견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고창군은 결핵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흉부 X-ray 촬영 등 결핵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둔 예정이다.

결핵은 기침, 가래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결핵 검사가 필요한 2급 법정 감염병이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 검사와 치료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함께 지원한다.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지만, 조기 진단이 늦어질 경우 치명적인 전파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창군보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친지 간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외출 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검진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2026년 일반음식점 기준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부안군은 지난 11일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일반음식점 기준 영업자들 대상으로 2026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식품위생법 정책 방향, 식품접객 서비스 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위생적인 음식문화 및 안전한 외식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해 위생 및 친절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실시됐다.

특히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과 식중독 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고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해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 및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영업주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교육을 통해서 영업주들의 업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청년정책 통합정보지 발간

## 2026년 청년정책 한눈에 총 54개 사업 수록

전북 고창군이 청년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 고창군 청년정책 통합정보지'를 발간했다.

통합정보지는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총 54개 사업이 수록됐다.

세부적으로는 고창군 자체사업 22개,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18개, 중앙부처 사업 14개로 구성돼 청년들이 행정 주체별 정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정보지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해 주거·일자리·복지·참여 등 4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구성돼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 주요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고창군은 이번 통합정보지를 관내 실·관·과·소 및 청년단체에 배부해 민원 응

대 및 정책 안내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정책 통합정보지는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라며, "청년이 정책을 찾아 헤매는 행정이 아니라, 정책이 먼저 청년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설 명절 민생경제 활성화 집중

## 전통시장 장보기·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병행

부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부안 로컬푸드 특별판매전 등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12일 부안상설시장을 시작으로 줄포상설시장과 곰소시장, 부안로컬푸드직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부안군여성단체들의

회 등 사회단체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명절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 생활필수품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했으며 온누리상품권과 부안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농축산·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병행 추진했으며 부안마실공영주차장을 설 연휴 기간 하루 최대 12시간 무료 개방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일 발행하는 부안사랑상품권도 설을 맞아 발행 규모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군은 설 명절을 맞아 2026년 설맞이

부안 로컬푸드 특별판매전을 진행한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부안읍에 위치한 부안로컬푸드직매장 본점과 최근 개장한 격포점, 온라인 쇼핑몰 '뿔밭할매물'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첫 명절 기획행사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명절 특판으로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설 명절 행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먹깨비 '최대 1만원' 파격 할인

## 설맞이 쿠폰·상시 할인 더해 중복 적용 혜택

김제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새해 복주머니 할인 이벤트'를 추진하며 대대적인 이용자 확보에 나선다.

이번 이벤트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주문 시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5천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6시에 각각 50명씩 지급될 예정이다.

시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도입 4개월 만에 누적 매출액 5억 9천만 원을 돌파

했다. 지난 8일 기준 가입자는 1,017명으로 집계됐으며, 민간 앱 이용 대비 약 6,50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익을 높이고 소비자 이용 문턱을 낮추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명절 기간 대형 유통 채널로 집중되는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설 이벤트의 핵심은 기존의 평일·주말 상시 할인 혜택과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평일(월~금) 이용 시에는 설맞이 이벤트 쿠폰 5천원에 상시 운영되는 매일 할인 쿠폰 3천원이 더해져 최대 8천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말(토·일)의

경우에는 혜택이 더욱 커진다. 설맞이 쿠폰 5천원과 매일 할인 쿠폰 3천원, 여기에 주말 배달비 지원 쿠폰 2천원까지 모두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김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12% 선할인 혜택까지 그대로 유지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설 명절은 지역 경제에 온기가 돌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새해 복주머니 이벤트가 시민들에게는 풍성한 명절 선물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확실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고창군이 12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을 비롯해 고창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출장소,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 한 국여성소비자연합회 고창지부 등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대대적인 시장 이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고창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설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인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병행해 시장을 찾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환급행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장날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셔틀버스를 행사 기간 내내 매일 운행하며 전통시장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며, 상인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셔틀버스 상시 운행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외국인 근로자 윈스톱 종합상담' 운영

김제시가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종합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제 관내 외국인 근로자는 2,200여명(24.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연계 상담 △한국어(TOPIK)-지게차 자격증 취득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외국

인 근로자 문화행사 운영 △지역문화탐방 프로그램 △내·외국인 근로현황 실태조사 등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기존 지원 정책에서 한단계 확장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윈스톱(One-stop) 종합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과 함께하는 협력주체"라며, "종합상담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만족도를 높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공영주차장 무료 시범 운영

부안군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오는 3월 초까지 시범 및 무료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주차장 이용 안내문 배포와 현수막 설치 등 주민 및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병행해 이용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운영상 미

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본격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터미널 이용객과 인근 상가 및 주거지역의 민생적인 주차난(주간 평균 106대) 해소와 함께 군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 향상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 완주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 행안부 561개 기관 대상 평가서 군단위 지자체 상위 20% 진입 성과 8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 획득

완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투명한 행정 서비스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는 △사전공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5개 분야 12개 지표로 진행됐으며, 완주군은 다수의 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을 받아, 상위 20% 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완주군은 군민이 청구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정보공표' 항목과 비공개 세부기준의 적합성, 그리고 정보공개 서비스를 이용한 군민들의 '고객만족도' 항목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완주군은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8년간 우수 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보공개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향후에도 정보공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더욱 고도화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토양개량제 공급...영농 기반 강화

### 운봉추천인월아영산내대상 4,549톤 공급...공동살포 지원

남원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등으로 척박해진 농경지의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는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유기물 분해와 미생물 번식을 촉진해 농작물의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돕는다. 특히,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공동살포 지원도 실시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영을 3개 권역으로 나눠 3년 주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다. 2026년 공급 대상 지역은 운봉읍, 주천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이며, 석회질과 패회석은 2월부터 마을별 공급을 시작해 영농기 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규산질 3,227톤, 석회질 703톤, 패회석 619톤 등 총 4,549톤의 토양개량제를 지원한다. 또한 살포 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억 6천만원을 별도 편성해 규산질비료 공동살포를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실전 시뮬레이션' 지진 주민대피훈련

순창군은 지진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일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지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군 안전재난과 주관으로,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활용해 순창군 자율방재단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피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실제 지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대, 군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총 25개소의 옥외 대피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진 상황이 접수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를 단계별로 즉각 가동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내는 물론 일본 인근에서도 지진 활동이 활발한 만큼, 군민들께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평소 숙지하고, 최신 기상정보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보건의료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채용

### 12일부터 진료 주민 접근성 개선 필수 진료과 의료 인프라 보강

순창군보건의료원이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새롭게 채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보건의료원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했으며, 12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의 채용은 필수 진료과목의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장거리 진료를 받아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채용된 전문의는 다년간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신규 채용으로 그동안 전문 진료를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공설공원모지 정비·이서 주차장 무료 개방

###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 안전 강화 비상근무체계 가동 사고 예방 총력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대책은 시설물 사전 점검부터 교통편의 확대, 환경정비, 연휴 비상근무체계 운영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며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불편 해소에 방점을 뒀다. 공단은 성묘객 방문이 집중되는 공설공원모지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고산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정비를 완료했

며, 화장실, 주차장, 보행로 등 다중이용 공간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이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무료 개방한다. 또한 공영마을버스 전 노선에 대해 사전 차량 점검과 안전운행 지도·관리 강화를 병행해 귀성객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높인다. 이희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설 연휴 동안 많은 군민과 귀성객이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중심 공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악취 민원 해소 총력

### 올해 '악취세정탑' 추가 설치 추진 5억 5천 투입 7월 준공 목표 진행

남원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주민들과 편의시설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악취 저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방지설비 개선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 '탈취용 악취세정탑 설치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 방지설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법정 의무사항인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해 시설 전반 정밀 점검을 마쳤다. 진단 결과, 고농도 악취는 농축조, 농축액 저류조, 슬러지 저류조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 방지설비 개선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 '탈취용 악취세정탑 설치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사진=남원시>

는 해당 구역의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총 5억 5천만원을 투입해 탈취용 악취세정탑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월부터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4월 중순 착공해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특히 처리시설 인근에는 생태습지공

원과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해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또한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문 민간 관리대행사가 상주하며 운영관리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기독교 근대기록 道 문화유산 지정 추진

### 초기 선교·남녀평등교육·31운동 등 삼대·소농·계월·위봉교회 소장자료

완주군이 1900년대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작성된 초기 기독교 기록물들의 역사적·사료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12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학계 교수, 서지학 전문가, 유물 소유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대기독교인 학술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고증 결과 △삼례제일교회 △소농교회 △계월교회 △위봉교회 등이 소장한 기록물은 초기 선교활동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교육, 31운동 등 당시 완주의 사회 변화와 근현대사 주요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료적 가치가 입증된 기독교 기록유산을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보존 가치가 특이한 일부 기록물은 장기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승격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기독교 근대기록유산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마로티 선교사 관련 자료 발굴 등 소중한 기록물들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상반기 전기차 보급...최대 2400만원 지원

### 승용 60대·화물 24대 공급 폐차 전환 최대 130만원 지원금

순창군이 친환경 자동차 확산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차 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 60대 △전기화물 24대 총 84대로 예산은 12억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 차등 지원으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189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1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추가 지원금은 해당 시종복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이 혜택은 폐차 또는 판매 대상 차량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며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이하 및 청년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



순창군은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 총 84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순창군>

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 택시 운전자에게는 최대 2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

합누리집(ev.or.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등이다. 지원 절차는 구매 예정자가 전기자동차 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판매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등록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 한의사회와 치매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

### 간담회서 운영 방향 공유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치료 지원

순창군은 한의치매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지역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치매 조기 개입과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치료 방법, 참여 한의원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치매 예방 모

델 구축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2026년도 한의치매예방사업은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1순위)와 인지저하자(2순위) 총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관내 7개 한의원 중 한 곳을 배정받아 약 4개월 동안 한의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는 한약 복용 등의 약물요법과 침·뜸·전침 등 비약물요법을 병행해 진행되며, 1인당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대상자 모집은 3월 중 진행되며, 연령과 인지 상태, 사업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혼불문학관, 3월까지 신년맞이 율점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혼불문학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율점의 유래를 살펴보고 체험하는 '짜라짜라 종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 민속의 보고인 소설 '혼불'의 문학적 위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혼불문학관은 방문객들이 민속문화를 되새기고, 전통 율점을 체험하여 '혼불'에 담긴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혼불'은 1981년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2천만 원 고료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월간 신동아에 연재된 작품이다.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을 주 배경으로 1940년대 사람들의 삶과 관혼상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를 생생하게 재현하여 문학적 가치를 뛰어넘는 깊이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문학관 관계자는 "한국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AI 로봇개' 체험형 교육·청사 순찰 투입

남원시가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개를 공공분야에 도입하며 미래형 스마트 행정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AI 로봇개 시연회를 개최하고, 교육 및 공공안전 분야에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AI 로봇개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이동하는 '피지컬 AI' 기술 실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자율주행과 장애물 회피는 물론, 공공시설 안내, 순찰 및 안전 점검, 미술관 해설 시나리오 등을 구현하며 향후 AI 기반 행정 모델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시는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활용 로드맵을 수립했다. 1단계로 자율주행 로봇개를 SW미래융합센터에 배치해 소프트웨어 교육 보조교구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인식·판단·이동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로봇개를 시 청사 내 상시 순찰과 반복 업무에 시범 투입해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원 안내, 전시간 해설 등 대민 서비스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 이현이, ITF 국제무대 복식 준우승 쾌거

지난 1월 창단한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이 국제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진안군은 군 테니스 선수단 소속 이현이 선수가 지난 2일부터 튀니지에서 열린고 국제적인 경기 운영과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연승을 이어가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아쉽게 우승컵을 놓쳤지만,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의미 있는 준우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튀니지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로,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에서는 이현이 선수와 업체인 선수가 출전하고 있다.

이현이 선수는 홍콩의 칭 랴이(Ching Lam Lai) 선수와 복식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다. 두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연승을 이어가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아쉽게 우승컵을 놓쳤지만,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의미 있는 준우승을 거뒀다.

특히 이번 성과는 선수단 창단 이후 첫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은 창단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현이 선수는 1주 차 대회 준우승의 상승세를 이어 2·3주 차 대회에도 연이어 출전해 추가 성과에 도전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 물가민생안정등전분야점검

장수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 5일간 설 명절 물가, 민생, 안전 등 군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수군은 '함께 살피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을 만들기 위해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종합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종합상황 △재난관리 △물가안정 △생활민원 △도로교통 △의료·가족방역 등 6개 분야 12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사전 점검부터 연휴 기간 비상대응까지 빈틈없이 운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군은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6개 대책반과 읍면 생활민원 상황반을 편성해 공무원 150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군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장수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기존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9곳에 대한 운영 현황을 군청 홈페이지 및 sms 등에 게시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달 26일부

터 오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가동으로 설 명절 성수품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와함께 재난관리대책반은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에 집중해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생활민원대책반은 연휴기간 중 생활·음식물 폐기물 적체 및 수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일을 읍면별로 사전에 홍보하고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무주군,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 나기 최선

###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안전·생활 안정·비상 진료·쓰레기 대책 등

무주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연휴 5일간 7개 분야 140명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서며 △주민을 비롯한 방문객 불편 최소화, △민생경제 및 서민 생활 안정, △각종 안전사고 예방, △비상 진료체계

구축, △긴전환 기부문화 조성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특히 연휴 기간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 진료 및 응급의료(24시간 응급실 운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설 명절을 위해 13일까지 무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새 단장" 국토대청결운동을 펼치며 연휴에는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대

책'을 기반으로 원활한 수거에 집중한다.

상수도 비상 상황반도 운영(시설물 점검 2.9~13/상황반 운영 2.14~22)하며 동파와 결빙 등에 대비한 상황점검과 민원 처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마을담당관제를 운영해 공무원 4백여 명이 담당 마을을 찾아 소외계층을 위문·격려하고, 가스와 전기, 난방 등 생활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등 돌봄 행정을 펼쳤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역KTX정차 호남권 철도전략 핵심

###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 5극+3특 균형발전 호남권 철도전략학술세미나 개최

임실역KTX 정차가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의 호남권 철도 발전과 관련한 핵심연결축이 될 중심으로 떠올랐다.

임실군은 지난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출에서 개최된 '5극+3특 균형발전 시대와 호남권 철도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 상반기 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가 주최·주관하고 임실군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호남권 철도 인프라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상업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 민 군수의 환영사, 이준 한국철도학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학계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거점 중심의 초광역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망 확충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서남권 철도망 구축전략'과 임실역 KTX 정차, 천만 관광 임실의 새로운 시작'이 주제



임실군은 지난 11일 '5극+3특 균형발전 시대와 호남권 철도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 상반기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발표로 다뤄졌다.

특히 임실이 전북 내륙과 남원·순창·진안 등 인접시군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교통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임실군은 '임실N치즈' 브랜드와 치즈테마파크, 옥정호 봉어선, 사계절 축제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난해 918만명이 방문한 관광거점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KTX정차는 단순 교통편의 개선을 넘어 관광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체류형 관광 확대와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축진제로 평가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학·연구기관·철도 전문가들이 참여한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역거점역 기능 강화방안과 철도 접근성 개선이 지역 산업·관광·정주 여건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도로 논의

했다. 참석자들은 KTX정차 확대가 대도시 중심 교통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북 내륙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지역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관광·산업·정주 정책과 연계한 종합발전 전략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임실역 KTX 정차를 통해 관광객 접근성 개선, 체류형 관광 확대, 생활 인구 유입 가속화, 지역상권 및 농특산물 소비증대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5극 3특 균형발전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겨울 가뭃 생활용수 위기 선제 대응으로 극복

### 섬진강 준설수계 전환 등 수원 확보 총력

진안군이 겨울철 가뭃과 한파가 겹치며 남부지역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군에 따르면 최근 강수량 부족과 지속적인 한파로 월운취수원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백운·성수·마령·부귀면 일부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군은 즉각 수원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연 체계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하천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섬진강(지방하천) 준설을 실시, 취수 가능 수량을 확대함으로써 남부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섬진강 준설을 통한 수원 확보 △취수시설 집중 점검 △취수장 수위 상시 모니터링 강화 △광역상수

도 일부 수계 전환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병행 추진하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동절기 한파로 인한 동파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반도 운영 중이다. 군은 △의민정·고지대 등 취약지역 집중 관리 및 해빙 작업 △동파와 발생 시 긴급 복구 및 임시 급수 지원 △동파 예방 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며 군민 불편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병행'

임실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군청 전직원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임실시장 및 오수상점가를 방문하여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과 장보기 행

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설 명절을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임실시장 내 13개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운영된다.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되며,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 점검 실시

#### 화재취약시설·전기·가스 안전 점검 실시하고 찾는 전통시장 조성

진안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일 진안도원시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유동 인구가 급증하고 제수용품 준비 등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해 군청 안전재난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투입됐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신속히 개선을 완료하게 했다.

이경영 진안부군수는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적이다"라며, "상인들과 방문객이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설 명절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임실군은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중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현황 및 세부일정은 임실군보건의료원 홈페이지 및 E-GEN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지정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원 감염관리팀(640-3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의료

원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설 연휴기간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구급차 24시간 대기체계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중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현황 및 세부일정은 임실군보건의료원 홈페이지 및 E-GEN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지정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원 감염관리팀(640-3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설 명절 대비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설 연휴 대비 선제적 홍보 강화

장수군은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량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유입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추진된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일대에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행사 참여자들은 시장을 찾은 운전자에게 혼잡지역 서행 운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 등 안전수칙 이행을 당부하는 메시

지를 전달했다. 또한 방문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는 안전한 보행 방법과 무단횡단 금지 등 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최근 2년간 장수군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0건을 기록했으며,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9건으로 전년 대비 13건(31%)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군민과 행정의 함께 만들어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결과로 평가된다.

최훈식 군수는 "설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한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 지역 단체·농가, 취약계층에 성금 기탁 이어져

장수군 장수읍은 지난 10일 지역 단체 및 농가가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쌀과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장수읍자율방범대, 장수라이온스클럽, 해오름도마토농장이 참여해 심시일반의 정성을 모았다.

먼저 장수읍자율방범대(대장 한유)는 우리 농산물인 쌀 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으며, 방범대는 평소 지역 치안 활동과 야간 순찰 등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장수라이온스클럽(회장 임재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해오름도마토농장(대표 한동근)도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이날 기탁된 쌀과 성금은 장수군 장수읍 관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김성수 전북은행前 무주지점장, 무주군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김성수 전북은행 마케팅 기획부장(전 무주지점장)이 12일 장학금 1백만 원을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전달했다.

김성수 부장은 "무주에서 근무하며 지역으로부터 받은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인재 육성에 뜻을 모으게 됐다"라며 "무주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수 부장은 2024년~2025년 전북은행 무주군 지점장으로 재직 당시에도 장학금을 기부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왔다.

/무주=최의호 기자



**다루 군산점, 군산시에  
돼지갈비 300인분 기탁**

군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종훈)는 설 명절을 맞아 다루 군산점(대표 이현주)으로부터 4백만 원 상당의 돼지갈비 300인분을 기탁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다루 군산점은 숯불갈비 전문점으로 뛰어난 고기 맛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랑받고 있는 지역맛집이다. 특히 매년 설 명절과 추석에 돼지갈비를 기부해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지역사회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날 기탁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탁된 돼지갈비는 중앙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동장단)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김종훈 중앙동장은 “지역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다루 군산점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후원해주신 돼지갈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한 한 끼로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 일동,  
임실 성수면에 성금 기탁**

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홍성만) 직원 일동은 지난 11일 설명절을 앞두고 성수면사무소를 방문해 현금 75만원을 기탁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2021년부터 직원들이 손수 모은 성금을 매년 명절에 기탁하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어김 없이 성금을 모아 면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를 통해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노창래 성수면장은 “매년 이웃들을 위해 명절마다 마음을 전해주시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면에서도 기탁자의 뜻에 따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마음 따뜻한 복지를 실천해 가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광훈·나금례 위원, 표창 수상**

**전북도청 대통령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김광훈(자문위원), 나금례(자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통일비전을 실현하고 지역내 평화통일역량 결집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수여하는 의장(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자문위원은 지난 10일 전북도청 2025년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광훈 자문위원(군의원) 제19

기~22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통일 활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나금례 자문위원은 제18~19기 및 제22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식 합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수=최진수 기자



**고창 부안면 행복나눔체,  
어르신들에 떡국떡·김 전달**

고창군 부안면 행복나눔체(회장 윤명수)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 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대적인 나눔 행사를 펼쳤다.

12일 진행된 이번 나눔 행사에서 행복나눔체는 떡국떡(87kg)과 김으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 250세트를 준비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윤명수 행복나눔체 회장은 “부안면 어르신들이 따듯한 떡국 한 그릇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의 명절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기홍 부안면장은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행복나눔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헌신 덕분에 부안면이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화답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주)건국, 3년째 완주군에 성금 기탁**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주)건국(대표 이재수)이 설 명절을 앞두고 완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주)건국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완주군은 군청 군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주)건국 박철환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전달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

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철환 부사장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올해도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건국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두꺼비회관, 설맞이 설렁탕 600인분 기탁**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두꺼비회관(대표 박옥진)이 12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설렁탕 600인분을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두꺼비회관을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박옥진 대표는 2013년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장김치 지원, 명절 음식 나눔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으며,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정성이 담긴 설렁탕 600인분을 준비했다.

박 대표는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농협 진안군지부, 취약계층에 사인머스켓 나눔**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한정호)는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12일, 도·농상생 우리농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사인머스켓 600만원 상당을 진안군(군수 전춘성)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NH농협 진안군지부와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서 사인머스켓(4kg) 200박스를 마련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

며, 해당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정호 NH농협 진안군지부장은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NH농협 진안군지부는 도농상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  
고스락, 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익산에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중수)은 12일 고스락에서 ‘2026년 지역 인재 우수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고스락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520만 원 규모다.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고스락은 학업과 일상에서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뜻을 모았다.

장학생은 북부지역 초·중학교의 추천을 받아 학업 태도,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학생들은 “꿈을 향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스락 관계자는 “지역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해에도 더 깊이 있는 보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세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북타임스임직원일동-

〈一事一言〉



수도권 초집중의 그늘 - 지방 소멸은 국가 위기다

김관춘  
주필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소멸 위기가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최근 2025년 전국 자치단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35.0으로 '경계 단계'에 머물렀고, 도내 14개 시·군 중 무려 8곳이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전주시마저 지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익산·군산·정읍·김제·완주 등 핵심 거점 도시들이 '경계 단계'로 밀려났다는 사실은, 전북이 더 이상 인구 문제의 변방이 아니라 한반복에서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소멸은 통계상의 경고음이 아니라, 지역의 존립을 좌우하는 실존적 위기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사회·경제·공간 구조의 붕괴 가능성을 예고하는 지표다. 20·30세 여성 인구와 고령 인구 비율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이 지수는 지역 사회의 재생산 가능성을 측정하는 핵심 척도다.

청년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출산율 하락, 노동력 부족, 소비 기반 축소, 지방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북의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이 악순환이 이미 구조적으로 작동하면서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입실군을 비롯해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7개 군이 모두 '위험 단계'에 포함됐다. 남원시 역시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농촌

지역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지역 사회 유지 자체가 어려운 '기능 상실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학교, 병원, 상점, 문화시설 등 행정 서비스가 유지되지 못하면 주민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하는 자기 증폭이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도 소멸 위험 지역은 65곳으로 늘어났다.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지방의 인구 기반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 모델이 수도권 초집중 구조에 고착되었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수도권의 주거비 폭등, 교통 혼잡, 환경 부담이 한계에 도달하는 반면, 지방은 빈집과 유휴시설, 폐교와 의료 공백이 늘어나는 극단적 양극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 해 1조 원에 이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 각종 재정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재정 투입만으로 되돌리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일자리가 없고, 교육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며, 문화와 주거 환경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청년과 가족이 지방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지방소멸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간 구조와 성장 전략의 문제로 다가

오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수도권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 지방으로의 분산을 유도하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 강화 및 추가 집중을 제한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는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아니라 입지 결정의 경제적 유인을 바꾸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넘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혁신 거점'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은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수소, 로봇·AI 제조, 바이오 등 잠재력이 큰 분야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이들 산업과 결합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유치를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산업 생태계와 결합될 때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공간 전략의 전환이 시급하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도시를 무작정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기능을 집약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 서비스, 의료, 교육, 문화, 주거를 중심지에 집중 배치하고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 도시 구조를 구축하면 인구 감소 속에서도 효율적 도시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채택한 현실적 대안이다.

넷째, 주민등록 인구를 넘어 '생활 인구' 개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광, 위케이션, 원격근무, 귀농·귀촌 체험 인구 등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와 공유 주거, 지역 기반 플랫폼을 통해 '머무는 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은 지방의 새로운 생존 모델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장수·순창·김제·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청년 여성 인구 증가와 지수 개선이 나타난 것은 정책 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인구 정책은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고, 최소 10년 이상의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대응은 정권과 정치 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다.

지방이 붕괴되면 국가는 지속될 수 없다. 전북의 소멸 위험 지수는 단순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간 구조의 경고등이다. 지금의 정책적 단일함은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을 남길 것이다. 재정 투입 중심의 미봉책을 넘어 구조적 대전환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사설

情으로 잇는 설 명절,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

설이 코앞이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 명절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휴일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는 가장 큰 시간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이 소중한 명절이 모든 도민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도 전북이 넉넉한 품으로 맞이하는 마음의 고향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설의 기쁨이 모든 이에게 고르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명절은 오히려 외로움과 부담이 커지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설은 공동체의 온기를 확인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모두가 함께 웃는 명절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와 지역사회가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다.

전북자치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하는 명절 지원 사업은 이러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다. 중위소득 100% 이내 취약계층 2,9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409개소를 대상으로 3억 6천만 원 규모의 현금·물품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2,50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의 명절 지원금을 지급하고,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 가정, 독거노인 등 400가구에는 위문 격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차례상 비용과 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공직자들의 모금 성금으로 마련한 '정 꾸러미'가 현장에 전해진다. 이는 제도적 지원과 자발적 나눔이 결합된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연휴 기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명절 음식을 배달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연휴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장애아동 돌봄 지원,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밀키트 제공, 자립준비청년의 자조 모임 운영, 노숙인 지원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24시간 상담 체계 유지 등은 사회적 안전망이 명절에도 멈추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러한 정책과 나눔은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명절을 계기로 드러나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중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동시에 기업과 시민,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눔 문화가 일상화되는 사회적 토대를 다져야 한다.

이와 함께 귀성객들이 찾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도 온기가 퍼지기를 바란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나눔의 선순환도 지속될 수 있다. 설을 맞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마음이 모일 때, 전북은 더 따뜻하고 품격 있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것이다.

설은 '함께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전북의 모든 도민과 귀성객들이 웃음과 온기를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나눔과 연대의 손길이 이어질 때 설은 단순한 연휴가 아니라 공동체의 품격을 증명하는 축제가 된다. 울설 명절이 전북 곳곳에 따뜻한 정과 희망을 퍼뜨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광장

평온한 명절을 노린 노쇼사기, 우리 모두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부고장, 교통범죄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노쇼(No-Show)사기는 크게 두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상인을 울리는 예약 부도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를 노린 예약금 가로채기이다.

상인용 노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예약금을 미리 받는 방법이 있다. 예약금은 고객에게 약속이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다.

두 번째는 고액 대량주문 신원 확인이다.

명절 단체 회식이나 고가 메뉴 예약 시 연락처 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가급적 선결제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 고지이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노쇼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매사에 비치하거나 안내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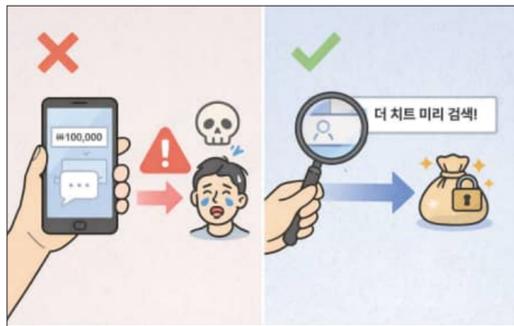
소비자용 명절 사기 예방은 첫 번째 비대면 개인 거래 주의이다. SNS나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급한 사정으로 숙박권을 싸게 판다"라며 개인계좌 입금을 유도하면 99%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식예약채널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증거자료 보전을 위해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판매 게시글 등을 캡처해 두어야 한다.

국번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위 김동민



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입금 전 '경찰청 사이버캡' 어플이나 '더치트'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사기이력을 반드시 검색한 후 확인하여 입금하는 것이다.

만약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오늘의시

설날 아침에 / 박노해

설날은 해가 뜨지 않아도 좋다  
집집마다 가슴마다  
해가 솟아날 테니  
설날은 까치가  
울지 않아도 좋다  
골목마다 새해 인사  
울려 퍼질 테니  
설날은 발갛게 쫄쫄 추워도 좋다  
이웃들을 돌아보는  
인정이 따듯할 테니  
설날은 새 옷이 아니어도 좋다  
묵은 옷 빨아 입고  
새 새 희망이 푸르를 테니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화/ 목요일 전북 가-00022(만2)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익산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완주지국 010-2258-3734
안주지국 010-98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전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재 열전



최광지 흥패 (보물 제2062호)

- 분류 - 기록유산, 전적류, 필사본
- 지정일 - 2020년 4월 23일
- 시대 - 여말선초
- 소재지 -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붉은 말의 해, 남원시 사회연대경제 설 선물세트 57종 한자리에

# 설 명절, 지역의 가치를 담다



하이오백·지리산·금부각·전통부각



비준양조·화동원



흥부마을영농조합·흥부다임 생삼세트



미꾸리추어탕협동·이호담 남원추어탕



웅치마을\_곰재로\_지켜줄게 에너지바\_선물세트



지리산처럼영농조합\_프리미엄 정성 선물세트



지리산황치마을\_누른당바사삭유기농누룻지

붉은 말의 기운처럼 힘차고 활기찬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남원시 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서덕교)와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안상연)는 남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설 선물세트 57종을 선보였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남원의 농산물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생산된 식품과 생활제품으로 구성됐다. 가격대는 5,500원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마련해 개인 선물은 물론 기업·기관 명절 선물로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올해는 신규 참여기업이 더해져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 재료와 공정에서 차이를 느끼는 남원 추어탕과 김부각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유)하이오백은 김부각과 함께 팽초장 신제품을 선보이며 설 선물 구성을 강화했다. 찹쌀죽을 듬뿍 발라 현미유에 튀겨낸 김부각은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며, 김부각과 팽초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더했다.

(5,500원~28,000원 / 하이오백 063-636-2072)

남원김부각협동조합은 김부각과 다시마부각을 반반 구성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특히 깊은 감칠맛으로 잘 알려진 다시마부각은 꾸준한 단골 수요를 확보한 인기 품목으로, 간식과 반찬, 술안주 등 활용도가 높다.

(24,000원~40,000원 / 남원김부각협동조합 063-625-7111)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은 100% 국내산 활미꾸리가지와 고랭지 시래기를 사용해 가마솥 방식으로 추어탕을 끓인다. 깊은 맛은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칼로리를 낮춘 제품 구성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명절 선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25,000원~35,000원 /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063-626-7722)

### 식탁과 간식 시간을 채우는 떡 디저트와 한과·전통주

사회적기업 메밀꽃피는향아리는 도정 후 15일 이내의 남원 쌀로 떡을 만든다. 기존 떡 디저트 구성에 한 개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더한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실용성을 높였다.

(34,000원~37,000원 / (유)메밀꽃피는향아리 063-625-9198)

웅치마을영농회는 수제 강정과 에너지바에 더해 신제품 홍시식혜를 출시해 선물세트 구성을 확대했다. 강정과 식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명절 간식 선택지를 넓혔다.

(25,000원~40,000원 / 웅치마을영농회 063-635-2157)

달오름마을은 마을 어르신들의 손맛을 살린 아콘한과를 명절 한정으로 생산한다.

아콘 조정을 사용해 과하지 않은 단맛이 특징이며, 수작업으로 완성한 한과 세트는 명절 상차림과 선물용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25,000원 / 달오름마을 010-3675-2231)

비준양조는 남원 금지평야에서 생산한 쌀로 전통주와 수제 맥주를 빚는다. 순수 쌀 증류주 '화동원' 1입·2입 세트와 수제 선물세트, 광한루 맥주 세트까지 총 3종의 제품을 선보이며 명절 선물 선택 폭을 넓혔다.

(화동원 25,000원~40,000원 / 수제선물세트 15,000원 / 광한루맥주 20,000원 / 비준양조 063-635-8627)

### 지리산이 키운 식재료로 준비한 선물세트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은 '누른당 바사삭 유기농 누룻지 선물세트'를 새롭게 출시했다. 간식처럼 즐길 수 있는 알고 바삭한 식감의 유기농 누룻지로, 전통 식품을 가볍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9,000원~35,000원 /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 010-5424-

9335)

지리산팍은물춘향골영농조합은 도토리묵과 우무면 밀키트에 이어 올방개 떡볶이, 도토리 수제비 등 신제품을 선보이며 제품군을 확장했다.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간편 조리 제품으로 명절 선물 선택지를 넓혔다.

(16,000원~43,000원 / 지리산팍은물춘향골영농조합 063-636-6111)

지리산처럼영농조합은 들깨를 원물 그대로 가공해 생들기름과 햇들기름, 들깨가루를 생산한다. 생들기름 스틱형 오메가3 세트와 다양한 기름·분말 구성의 프리미엄 세트는 건강 식재료 선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18,000원~52,000원 / 지리산처럼영농조합 063-636-8788)

흥부마을영농조합은 지리산 아영 고랭지에서 재배한 깨로 참기름과 들기름을 착유한다. 참기름·들기름·생들기름으로 구성된 흥부다임 세트는 명절용 고급 식재료 선물로 안정적인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

(39,000원~100,000원 / 흥부마을영농조합 063-625-2932)

영농조합법인 야미는 전통 장류와 함께 현미를 활용한 제과 제빵 제품을 선보인다. 장트리오 세트와 더불어 현미쌀빵, 쌀스콘, 쌀쿠키, 쌀만주 등 다양한 제품으로 전통 발효식품과 간식을 함께 구성했다.

(39,000원 / 영농조합법인야미 010-2077-2054)

### 일상에 오래 남는 생활 선물

초록나무협동조합은 원목의 결을 살린 앤드그레인 도마를 제작하는 신규 참여 기업이다. 내구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주방 생활제품으로, 실용적인 명절 선물을 찾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안한다.

(25,000원~100,000원 / 초록나무협동조합 063-632-8931) /남원=정하복 기자